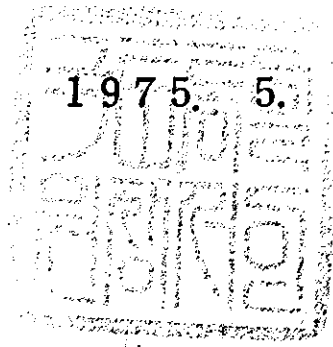


80年代 韓國統一과 關聯된 內的
與件의 分析과 展望



國 土 統 一 院

(第一擔當官室)

目 次

1. 問題의 提起	1
가. 假定의 設定	1
나. 國際緊張緩和의 要因	2
다. 外的要因과 內的要因과의 關係	4
라. 小結論 (문제의 제기)	6
2. 政治的 与件과 變질가능성	8
가. 政治的 与件	8
나. 變質要因과 變質可能性	9
3. 經濟的 与件과 變質可能性	19
가. 經濟的 与件	19
나. 變質要因과 變質可能性	28
4. 社会的 与件과 變질가능성	30
가. 社会的 与件	30
나. 變질요인과 變질가능성	34
5. 展 望	36

1. 問題의 提起

가. 假定의 設定

본 課題 “ 80年代 韓國統一과 관련된 內的與件의 分析과 展望 ”은 論題에서 “ 國際情勢 ”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 國際情勢 ”와 “ 韓半島 주변정세 ”의 가정하에서 作業을 實施하였으며 韓國의 내부요인은 거의 제외하고 있음.

(1) 國際情勢

(가) 긴장완화의 지속적 展開

80年代에도 國際權力構造의 다극화는 더욱 심화, 擴大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상고정화, 國際분쟁의 協商에 의한 解決, 다극적인 理解關係의 設定등을 속성으로 하는 緊張緩和 추세는 繼續될 것이다.

(나) 平和共存의 불가피

國際權力構造의 다극화, 發展途上國家들의 國際舞台에서의 지위향상으로 초대강국인 美·蘇 공히 自國의 힘의 한계를 認識하고 核戰爭은 동시 破滅을 가져온다는 위기의식의 대두, 과중한 軍事費負擔을 平和産業에 지향해야 하는 共通的인 理解關係를 갖고 있음으로 80年代에도 양체제간의 平和共存은 불가피할 것이다.

(2) 韓半島 주변정세

(가) 4大強國에 의한 세력균형의 繼續維持

80年代에도 國際情勢의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 韓半島는 주변 4大強國의 勢力의 접합점으로서 이들 強大國의 세력균형하에 繼續 놓이게 될 것이며 4大強國중 어느 특정 國家가 韓半島에서 헤게모니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4강의 論理가 支配할 것이다.

(나) 자국에 유리한 勢力개편의 試圖

그러나 크메르와 越南의 最近의 적화가 말해주듯이 아시아 情勢는 歐洲에 비해 아직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4大強國은 韓半島에서 世界大戰이 일어나지 않는 範圍内에서 자국에 유리한 方向으로 勢力개편을 試圖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나. 國際緊張緩和의 要因

(1) 西方側의 主張

(가) 탈이데올로기 현상과 내쇼날·인테레스트

-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내쇼날·인테레스트의 우위 現象의 대두
-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共同行動강령의 상실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理念투쟁의 展開
- 따라서 現代의 國家關係는 理念보다는 “내쇼날·인테레

스트 "에 의해 좌우

(나) 테크노크라시 현상의 대두

- 共産諸國 : 집권층(共産黨)에 대한 테크노크라시의 우위 현상이 점차 擴大
- 資本主義國家 : 테크노크라시 현상의 점증으로 資本家와 勞働者間의 적대적인 모순이 비적대적인 모순화, 계급투쟁이 없는 社會改革이 可能하게 될 것으로 展望

(2) 共産側의 主張

(가) 社會主義진영의 힘의 강화

- 國際緊張緩和는 社會主義진영의 經濟的, 政治的, 軍事的 잠재력의 강화 및 國際共産主義運動의 團結의 擴大, 民族解放 鬪爭의 高조로 促進되고 있다.
- 그러므로 緊張緩和는 더욱 더 社會主義 진영에 유리한 客觀的인 情勢를 조성해 줄 것이다.

(나) 強大國에 의한 세력균형의 부인

- 世界情勢는 軍事力의 역학관계, 즉 양국체제니, 3국체제니, 5국체제니 하는 등의 強大國의 세력균형에 의해서 左右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主義진영과 資本主義 진영간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決定된다.

(다) 階級鬪爭의 必然성을 강조

- 緊張緩和는 결코 階級鬪爭의 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最近 西方國家에서 이데올로기 및 테크노크라시 現象의 대두를 強調하는 理論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것은 階級鬭爭의 必然性을 배제하려는 브르주아 이데올로기의 意識적인 조작이다.

다. 外的要因과 內的要因과의 關係

(1) 兩要因의 相互關係

外的要因은 變화의 條件이며 內的要因은 變화의 根柢이다. 따라서 外的要因은 반드시 內的要因을 通해서 作用한다.

(2) 80年度 韓半島情勢의 展開樣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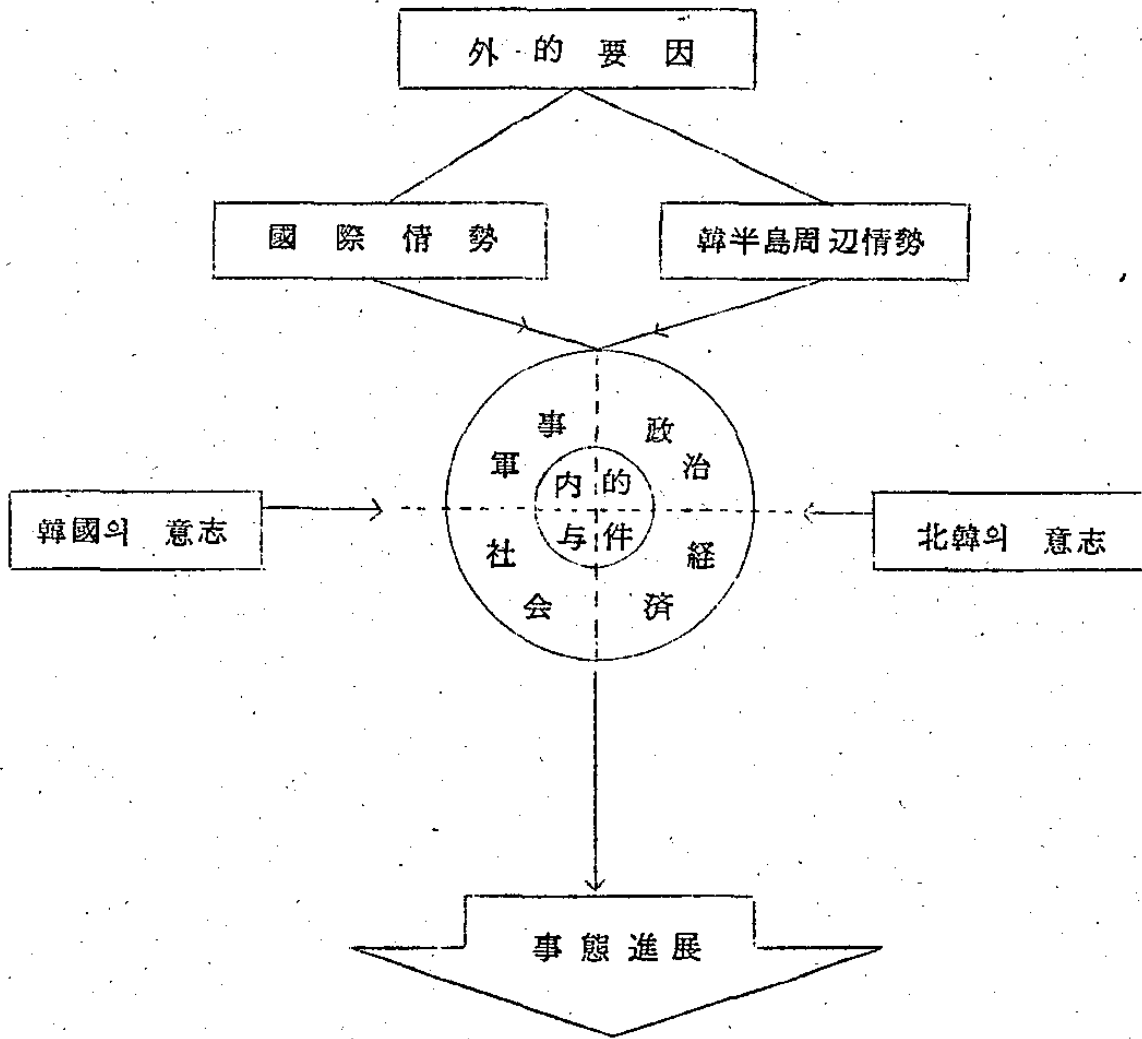
(가) 外的要因

- 社会体制를 달리 하는 國家間의 關係改善과 協力の 強化, 現象의 固定化, 國際紛爭의 協商에 依한 解決을 核心으로 하는 緊張緩和 趨勢와
- 韓半島를 接合点으로 해서 勢力均衡을 조성하고 있는 4大強國의 調整과 影響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나) 內的要因

上記 外的要因은 南·北韓의 內的, 즉 南北韓의 政治, 經濟, 社会, 軍事的 与件과 執權層의 意志등과 부합적으로 作用하여 사태진전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外的要因斗 内的要因斗 關係



라. 小結論 (問題의 提記)

- (1) 勢力均衡은 원래 特定國家에 의한 「헤게모니」의 장악을 不許하는 論理를 갖고 있으나 匪細匪 정세가 流動的이라는 特殊性이 4大強國으로 하여금 自國에 有利한 方向으로 勢力改編을 하게 하려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 (2) 특히 最近의 「크메르」와 越南의 赤化가 證明해 주는 바와 같이 民族主義와 당사자 해결주의의 강한 傾向은 強大國의 干渉을 無力하게 만들고 있다.
- (3) 더욱이 共產主義者들 특히 北傀는 80年代에도 持續될 것으로 보이는 緊張緩和의 국제정세의 추세가 그들에게 有利한 客觀的 정세를 조성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적화통일에 利用하려고 試圖할 것이다.
- (4) 이러한 觀点에서 볼때 80年代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外的 여건보다는 南北韓의 內的 여건에 의해서 決定的으로 左右되게 될 것이다.
- (5) 過去 北傀의 對南戰略 역시 이러한 바탕 위에서 展開되어 왔으며 80年代에 있어서는 더욱 內的 여건의 重要性이 倍加 됨으로써 韓半島의 內的 與件의 如何에 따라 北傀의 對南戰略의 樣相과 性格이 決定될 것이다.

* 内的与件을 중시하는 金日成의 發言

- (1) " 우리들은 南進하지 않는다. 이것은 保證할 수 있다.
「스파이」도 보내지 않겠다. 이것도 保證할 수 있다. 그
러나 自然히 革命이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는 保證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탄압이 있으면 革命이 일어나기 때문에 "
(74.8.9 " 「우즈노미야」 " 金日成 會談에서)
- (2) " 만약 南韓에서 革命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를 수수방
관하지 않을 것이다. " " 戰爭이 일어나면 軍事分
介線이 없어지고 우리는 統一을 이룩할 것이다. "
(75.4.18 北京에서 金日成을 위한 歡迎會 席上에서)

2. 政治的 与件과 變質 可能性

가. 金日成 唯一体制의 形成過程

(1) 金日成 体制의 確立

(가) " 소비에트 " 式 政權 부식기 (1945-50)

- " 北朝鮮勞動黨 " 成立 (1949.6)
- "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 " 樹立 (1946.2)
- "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 樹立 (1948.9.9)
- 北勞動黨 南勞動黨 合黨 (1949.6)

(나) 金日成 体制 確立期 (戰後 - 60)

- 休戰後 6.25 敗戰 책임전가, 간첩죄로 박헌영등 南勞動黨 肅清
- 反金日成事件의 주모자인 연안파 최창익, 소련파 박창옥등 肅清 (1956)
- 주체사상 제기 (1956.4.3. 3次黨大會)
- 金日成 支配体制의 革命傳統的 조작

(다) 金日成 体制의 試練期 (1960-69)

- 金日成 体制의 試練
中·蘇紛爭의 激化 (1960-69)
反金日成 음모사건의 發生
蘇聯의 經濟援助 中斷

○ 自主路線의 宣言 (1966.8)

政治의 自主 - 金日成 主体思想의 理論化

經濟의 自立 - 自立經濟의 確立試圖

國防의 自衛 - 4大軍事路線 採択

○ 对南 폭력혁명 투쟁전술 採択 (66.10, 第2次党代表者會議)

中·蘇紛争의 試練을 克服하기 위해 1.21事態 (1968)

삼척, 울진 武裝「게릴라」침투 (1968), 「갈」機납북,

「프에블로」号, EC-121 (1969) 事件 惹起

나. 金日成 唯一体制의 強化

(1) 憲法의 改正

(가) 中共型 國家主席制 導入

(나) 金日成 1人에게 모든 權力の 集中

(党中央委 總秘書, 同 政治委 首位者, 中央人民委 委員長, 同 軍事委 委員長)

(다) 不可侵的인 絶對的인 存在로 굳힘

○ 金日成의 党에 대한 統制強化

○ 最高人民會議 - 党的 어용기관, 金日成 소환불가

○ 最高人民會議

> 金日成의 하위 執行機關

○ 정 무 원

(2) 金日成의 偶像化

(가) 金日成 偶像化

- 金日成의 革命傳統성과 가계의 조작
- 無條件的 服從의 強要
(金日成=法, 絶對性, 無條件 服從의 原則)
- 党에 대한 金日成의 優位를 鼓吹
 - * 새로운 구호의 制定
 - 党과 首領님을 목숨으로 보위하자
 - 首領님의 敎示를 實踐하기 前에는 죽을 權利도 없
다.
 - 首領을 위해 사는것도 榮光, 죽는것도 榮光

(나) 金日成 思想의 一色化 運動의 展開

- 金日成 思想의 末端 浸透
- 金日成 偶像化에 拍車
- 金日成 独裁体制의 이완 可能性 배제

評 価

- 金日成 一人独裁体制의 合理化
- 北韓社会의 構造的 모순의 克服策
- 金日成主義를 創造하기 위한 포석
- 北韓社会에서 政治的 不滿의 内面에 흐르고 있음을
反証

다. 金日成 独裁体制의 永続化

(1) 族閥政治의 強化

- 강랑옥 (외종조부) - 정무원 부주석
- 허담 (4촌매부) - 부총리 겸 외교부장
- 김성애 (金日成의 妻) - 女性同盟委員長
- 김정숙 (4촌누이) - 사로총부위원장
- 김정일 (金日成의 아들) - 中央黨組織 및 宣傳担当 秘書, 政治委員會 候補委員으로 비밀리에 任命 (1973. 党第5期 7次全員會議)

(2) 金正一을 後繼者로 부각

- 金正一의 敎示 = 金日成의 敎示
金日成, 金正一의 指示나 演說을 自身の 敎示와 同一視 하도록 措置
- 金日成에 使用하는 尊稱을 부치게 함
 - " 敬愛하는 "
 - " 尊敬하는 指導者 "
- 그의 노작을 學習토록 義務化
- " 金正一 말씀집 " 發刊

↓
評 価
↓

- 族閥政治 : 權力을 保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根源으로 看做
- 金日成의 後退와 密接한 關聯
- 世襲的인 繼承者를 두어 退去後의 재앙 방지
- 김영주, 김성애, 김정일의 三角關係의 形成, 金日成 死後 치열한 권력투쟁 예상시

(3) 北傀의 權力体制

(가) 權力構造

* 1973.9.17 労働党第5期7次專門委員會에서 改編

………… 新任

1) 주석단

김동규 : 副主席

2) 정무원

總理 : 金 一

副總理 : 박성철, 남일, 최재우, 허담, 김영주, 정준기,

,

事務長 : 홍원길

3) 党中央委 政治委员会

序列	政治委员	序列	同候補委员
1	김 일 성	1	현 무 광
2	최 용 건	2	양 형 섭
3	김 일	3	최 재 우
4	박 성 철	4	강 성 산
5	최 현	5	정 준 기
6	김 영 주		
7	오 진 우		
8	김 동 규		
9	서 철		
10	김 충 린		
11	한 익 수		
12	이 근 모		
13	이 용 무		

(가) 社会的 배경성분 (정회원)

1) 經 歷

- 유격대出身 : 8名 (김일성 , 최용건 , 김일 , 박성철 , 최현 , 김영주 , 오진우 , 한익수)

- 비빨치산出身 : 51名

2) 教育水準

- 高等教育 : 4名
- 初等教育 , 無學者 : 6名
- 其 他 : 3名

3) 年 令

- 70代 : 1名
- 60代 : 8名
- 50代 : 4名

4) 階 級

- 김일성직제 : 절대다수
- 國內派 : 서찰

5) 직역 (解放以後)

- 당 엘리트 : 3名
- 군부 엘리트 : 5名
- 행정관료 : 5名

↓
分 析

(1) 구세대와 신세대間의 世帶交替 現象의 대두

- 김동규 (당정치위원) - 부주석
- 이근모 (機械工業 專門家) - 副總理
- 홍성면 (科學技術 專門家) - "
- 정준기 (勞動新聞責任 주필) - "
- 홍길원 (副總理) - 정무원 사무장

(2) 經 歷

- 유격대출신 : 8 名
- 비유격대출신 : 5 名

(3) 年 令

- 주식단 :
70 代 - 2 名 , 60 代 - 1 名 , 50 代 - 1 名 (김동규)
- 당정치위 :
70 代 - 1 名 , 60 代 - 8 名 , 50 代 - 4 名

(4) 계 보

- 김일성직계 : 절대다수
- 국내파 : 서 칠

(5) 직 력 (解放以後 經歷)

- 당 엘리트 : 3 名
- 군부 엘리트 : 5 名
- 행정관료 엘리트 : 5 名

(1) 新時代, 기술관료의 기용

- 3大技術革命(思想, 技術, 文化)을 強力히 推進하기 위한 措置
- 「3大革命소조」를 利用한 관료주의적, 나태한 기풍의 쇠신
- 김정일의 後繼者 翁립과 유관

(2) 政策決定機關은 아직도 遊學隊出身이 左右

- 북괴의 權力이 非正常的으로 運營될 可能性 농후(홍분의 政治)
- 技術로서의 政治나 行政보다는 이대올로기에 의한 無條件追從을 強要
- 非合理化, 非科學性이 支配
- 政策의 軍事的. 性格化

(3) 아직도 60代가 主導權을 장악

- 政策의 경직화, 유연성과 신축성의 欠如
- 政治委員 全員이 以北, 滿州出身임으로 私的인 統一의 切實性 欠如, 民主主義보다 共產主義 理念에 執着

(4) 教育水準의 低級

- 非合理的 英雄主義의 發動
- 盲信과 盲從이 政策의 基礎
- 相對的 存在의 不正, 絶對主義化 傾向

(5) 絶對多數가 金日成의 直系로 構成

○金日成 個人의 思考에 依해 政策決定, 合理的 政策建議의 不在

○多様な 政策提示와 調整이 困難, 政策의 一元性이 支配

(6) 黨論, 官僚, 軍事 엘리트의 均衡

○一人独裁体制의 強化를 위한 相互 견제

나. 變質要因과 變質 可能性

(1) 變質要因

(가) 金日成 一人独裁体制의 加速化

○内部矛盾의 激化는 더욱 独裁体制의 絶对化를 惹起

○金日成의 偶像化, 唯一思想, 永統化試圖에 对한 反作用 惹起

(나) 旧世代와 新世代間의 磨擦

○新世代의 挑戰과, 旧世代의 既得權 確保를 위한 發惡

○레크노크라시 現象 - 黨幹部에 对한 技術官吏의 優位現象 抬頭

○脱이대올로기 現象 - 合理主義的 思考方式의 抬頭

(다) 金正一 後繼者 問題를 위요한 權力鬭爭

○김성애, 김영주, 김정일의 三角關係를 頂點으로한 權力鬭爭과 暗鬭의 展開予想時

○族閥政治에 对한 執權層内の 分裂

(2) 變質可能性

(가) 政策決定의 非合理性, 非融通性, 一元性 →

對南赤化 絶對主義的 敎條主義를 指向

(나) 世代交替의 不可避

“우리의 幹部들이 지난 時期 많은 일을 하였고 重要的 役割을 하였으나 解放後 30年의 歲月이 흐르다보니 이제 는 나이가 먹었으며 그들의 水準도 빨리 發展하는 現實 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975.3.3. 工業일꾼熱誠者大會 에서의 金日成 演說)

(다) 旧世代와 新世代間의 磨擦

테크노크라시 現狀) 意識構造의 變動 (合理主義的 思考方式 →
脫이 데올로기 現狀
→ 修正主義의 出現

(라) 敎條主義對 修正主義의 對決

- 敎條主義의 優勢時 - 對南赤化絶對主義 持續
- 修正主義의 優勢時 - 對話의 可能性

(마) 金日成後繼者問題

- 金正一의 登場을 合理化하고 地位를 鞏固히 하기 위한 必要에서 既存權威에 對한 대담한 批判과 革命經歷 및 出身性분에 對한 價值尺度의 動搖

3. 經濟的与件과 變質可能性

가. 經濟的与件

(1) 經濟計劃의 變遷過程

구 분	기 본 목 표	성 과
整 備 期 (1945-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産業施設의 国有化 ○ 日帝의 殘滓施設 復旧整備 ○ 計劃經濟 實施準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土地改革 實施 ○ 産業의 国有化 ○ 諸般施設의 復旧整備
第 1 次 1 個年 計劃 (1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場, 企業所 復旧整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輕工業 및 最業部門에 注力
第 2 次 1 個年 計劃 (1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生活必需品 生産增加 ○ 食生活問題 解決 	
第 2 次 2 個年 計劃 (1949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部門에서 44 年生産 水準到達 ○ 工業施設 建設 및 擴張 ○ 商業部門 社會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戰爭準備
6.25 動亂時 (1950-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戰時經濟體制로 轉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戰力維持企圖 ○ 49 年比 53 年工業 總生産 額은 65% 低下
戰後復旧 3 個年 計劃 (1954-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破壞施設復旧로 49 年度 水準到達 ○ 重工業의 優先的 發展 ○ 農業의 協同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重工業基地 復旧建設 ○ 農業協同化를 위한 物質的 準備을 基本的으로 完了
第 1 次 5 個年 計劃 (1957-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會主義國家 基礎確立 ○ 重工業의 優先的 發展 ○ 農村經濟의 協同化 ○ 個人商業의 社會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8 年에 社會主義의 工業化 基礎確立 ○ 59 年上半期에 5 個年計劃達成 ○ 重工業 置重으로 인한 輕工 業 發展不振

구 분	기 본 목 표	성 과
第1次7個年計劃 (196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重工業의 優先的 發展 ○輕工業과 農業의 同時的 發展 ○全面的 技術革新 	<ul style="list-style-type: none"> ○工 業: 目標의 72.2% 達成 ○農産物: 目標의 57-67% 達成 ○水産物: 目標의 58-70% 達成 ○不得已 3年間延長決定
第1次7個年計劃의 3年延長 (1967-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併進政策 ○技術革命의 增進 ○軍需工業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年末現在 石炭, 電力 部門만 達成 ○70年末現在, 工業目標의 103% 達成 ○總量計劃은 89.8%로 未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45-1949 : 人民民主主義 革命의 完成 (2) 1953-1958 : 社会主義 工業化 基礎確立 (3) 1959-1971 : 社会主義社会로 履行하기 위한 物質的土台確立 (4) 1972- : 社会主義社会 經濟로 突入 (憲法改正) |
|---|

(2) 現 6 個年計劃의 背景

(가) 計劃期間의 延長 (1968-70)

計劃期間을 3 年間 延長 (計劃目標의 70%에 未達)

(나) 실패요인

- 중·소 紛爭에서 北傀의 대중공편중으로 소련의 經濟援助 중단 (1962-65)
- 軍수산업 爲主의 重工業政策으로 各經濟分野의 不均衡招來
- 4大 軍事路線의 展開
- 生産施設의 노후화 , 技術의 落後 , 勞動生産性의 저하

(3) 6 個年計劃의 當面目標

(가) 10代 建設目標의 達成

(나) 6 個年 計劃의 早期達成 (75.10.10 까지)

이를 爲해 5대전선(1) 기본건설 , 2) 工業 , 3) 農業 ,
4) 輸送 , 5) 水産業)에의 總支援

(다) 勞動力 動員의 極大化 , 生産潛在力의 最大活用

社會主義 競爭運動과 各種 速度戰의 展開

(3) 現 6 個年計劃의 中間評價

(가) 中心課題의 變更

• 10代建設目標 達成(初期) → 基本建設 中心으로 전환(제 4 차년도부터)

1) 10代建設目標: 現存施設의 보강과 進行中の 工事完備,

基本建設은 부수적

2) 基本建設: "큰 建設", "새로운건설"을 말하며 "基本 建設部門 모든 부문에서 6 個年計劃을 앞당겨 完遂하기 爲한 基本的 관건이다"라고 強調(1974.2 노동당 中央 委 第5期8次會議)

評 價

- 6 個年計劃의 策定에서는 基本建設을 부수적으로 取扱해 오던 것을 第4次年度에 와서 基本建設에 力點을 두기 시작한 것은 6 個年計劃이 重大한 차질을 가져왔으며
- 7 個年計劃中에 建設된 工業施設의 落後性으로 因하여 이를 効果적으로 利用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임.

(4) 鉍工業 部門

区 分	生 産 目 標 (76年)	実 績 (74年)
工 業	石炭 : 5,000-5,300 만톤 鉄鉍石 : 1,100 만톤 (70年 비 1.8 배)	石炭 : 3,700 만톤 (추정) 鉄鉍石 : 650 만톤 (추정)
金屬工業	銑鉄 및 粒鉄 : 350-380 만톤 鋼鉄 : 380-400 만톤	銑鉄 : 223 만톤 (73年生産能力) 鋼鉄 : 243 만톤 (")
機械工業	工作機械 : 27,000 대 트랙터 : 21,000 대 自動車 : 70 년비 2.4 배 船 舶 : " 3.4 배	工作機械 : 30,000 대 트랙터 : 年間 2-2.5 만대 (生産能力) 自動車 : 年間 1만대 (生産能力) 造船能力 : 14,000 톤 D/T 貨物船 건조
化学 및 建材工業	化学肥料 : 280-300 만톤 시멘트 : 750-800 만톤 合成樹脂 : 12 만톤 (70년 비 3 배)	化学肥料 : 200 만톤 (추정) 시멘트 : 550 만톤 (추정) 合成樹脂 : 10 만톤 (設備能力) 원유처리능력 : 4 만 BPSD
輕工業 部門	냉장고 : 126,000 대 수상기 : 100,000 대 직 물 : 5-6 억미터	내구消費財生産能力 : 未詳 織物生産 : 4 - 5 억미터



- 74年 現在 主要生産目標의 60-70% 水準
- 鉍工業部門 綜合実績 50-60% 水準
- 6個年計劃 수행상 最近 서방으로부터 資本 및 設備導入 (74年 대서방 設備導入 44件, 交涉 218件)

(나) 社会間接資本 部門

区 分	計劃目標 (76年)	実 績 (74年)
電 力	發電施設容量 : 500 만 KW	施設容量 : 400 만 KW
輸送運送	鐵道貨物輸送量 : 70年비 1.7 배 船舶貨物輸送量 : 70년비 1.7 배 貨物自動車輸送量 : 70년비 1.8 배	平壤 - 사리원간 전철화 工 事中 북청 - 덕천 - 강계 - 무산間 鐵道 建設中 하역能力 : 1,000 만톤추정 (73年) 승용차및대형貨物自動車輸入 승용차, 버스 : 1,859 대 貨物自動車 : 399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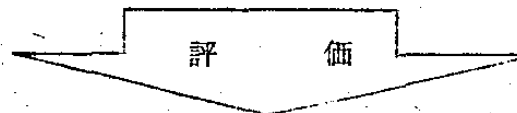


- 電力生産 74年 現在 6個年 計劃目標의 70-80% 水準
- 輸送運輸部門 낙후 심각
(党中央委 第5期 8次大会에서 金日成, 同部門의 낙후성에 관해 지적)
- 社会間接、施設의 낙후는 北韓經濟의 最大의 隘路部門

(라) 農業部門 (알곡생산)

年 度	生 産 庫	前 年 度 比
1972	393 만톤	
1973	534 만톤	136 %
1974	700 만톤	131 %

* 76年度目標 : 700-750 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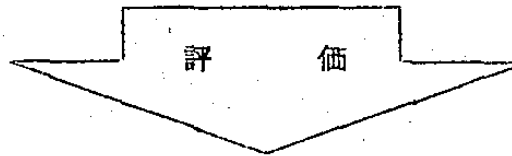
- 上記 生産実績은 金一의 報告에 의한 것인바 年平均 30%以上 生産增加 現象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農業成長率이 工業成長率(1973年 19%)을 상회하는 것으로 도저히 不可能한 実績임.
- 74年 金日成 農村 테제 發表 10주년을 맞아 生産実績의 誇張發表가 不可避했던데 기인한 것임.
- 74年 穀物生産 実績은 實際에 있어서 6個年 計劃 目標의 65% 水準임.

(H) 北傀의 外資導入 現況

年度別 外資導入 現況

單位：百萬弗

年度 地域別	70	71	72	73	74	計
蘇 聯	87	250	150	109	120	716
西方諸國 (9個國)	3	17	204	375	400	999
計	90	267	354	484	520	1,715



- 72年 以後 대서방 資本導入 急增
- 75年 3月 現在 대서방 연채액 39件, 11,447萬弗
(75年 借款 上환액 18,615萬弗)
- 74年末부터 대서방 연채關係 國際問題化

(5) 南北韓 重要經濟指標 比較

区 分	韓 国	北 韓
人口 (千名)	33,459 (74年P)	15,900 (74年)
人口增加率 (%)	1.67	2.4
国土面積 (km ²)	98,447.48	122,370.38
G N P (億弗)	171.6 (74年P)	48.2 (74年)
1人당지엔피 (弗)	513 (74年P)	313 (74年)
軍事費負擔率 (%) (軍事費 / G N P)	4.2 (74年P)	13.9 (74年)
投資額 (億弗)	51.5 (74年P) (海外貯蓄包含)	16.9 (74年) (海外貯蓄包含)

註 : P는 暫定추계

資料 : 韓國經濟企劃院 統計局



○ 南北韓 国力 및 年活水準의 隔差 검증

나. 變質要因의 추출과 變質 可能性

(1) 變質要因

(가) 自主路線의 표방 (1966.8 自主路線 宣言)

- * (1) 政治에서의 自主
- (2) 經濟에서의 自立
- (3) 國防에서의 自衛
- 이 中에서 經濟的 自立은 모든 自主權의 基礎

(나) 經濟成長의 鈍化

- 中央集權的 管理方式 - 物資의 낭비, "노르마" 達成을 위한 粗製品의 生産, 官僚主義의 抬頭
- 施設의 老朽化, 技術의 否足 - 勞動生産性의 鈍化

(다) 勞動力과 生産潛在力의 극대화

- 식병기의 導入, 軍需産業의 擴張 - 資源配分의 不均衡, 勞動力의 不足狀態 초래

(라) 北韓住民의 生活水準 向上

- 南北對話의 經驗에서 北韓住民의 生活水準의 어느 程度의 向上 不可避

(2) 變質 可能性

(가) 經濟的 自立→資源, 技術不足의 가중→對外貿易의 擴大→
개방사회

(나) 經濟成長의 鈍化

- 中央集權的 管理方式→分權化→市場經濟의 導入→經濟의 自由化
- 勞動生産性의 저하→西方諸國의 外貨, 技術導入 不可避
→自由의 물결 浸透→탈이 데올로기 및 테크노크라시
現象의 抬頭

* 勤勞者中 技術, 專門家의 數 急增(年平均 15%)

区 分	60 年	70 年	76年(예측)
技術者, 技能工	134,000 名	498,000 名	100 万名

(다) 勞動力과 生産 潛在力의 總動員

- 北韓住民의 社会主義 生活樣式으로 改造,
女性의 社会化
- 社会主義 競争運動과 速度戰의 가일층 強化→國民들의
不滿 야기→反抗勢力의 顯在化

(라) 住民들의 物質的 向上

- 生活水準의 向上→취미의 多樣化→金日成 일인獨裁체제
에 대한 염증 유발→自由世界에의 동경

4 . 社會的與件과 變質可能性

가. 社會的 與件

(1) 反體制的 要素의 除去 (1953-61)

(가) 肅 清

- 南勞黨 肅清 (1955.12)
6.25 敗北의 責任과 間諜罪目으로 박헌영 등 南勞黨의 肅清 단행
- 反金日成 事件 (1956.8)
연안과 최창익, 蘇聯과 김창옥 등 肅清
- 黨集中指導事業의 實施 (1957.5-1959)
反革命的 要素의 除去를 爲한 北韓住民에 대한 대대적인 肅清단행

(나) 宗教탄압

- 形式上 : 北韓憲法, 宗教自由 보장
- 實 際 : 宗教를 아편으로 간주, 일체의 宗教活動禁止
- 教會, 사찰등을 改造, 탁아소, 유치원, 倉庫등으로利用

(다) 教育체제 개편 (1959. 내각결정 8 호)

- * (1963 年, 72 年 재개편)
- " 學生 社會義務 노동제 " 實施 (年 13 주 - 16 주)
- " 群衆體育事業 " 의 擴大, 住民들의 集團化 도모

評 価

- "스타린"식 独裁支配체제의 基礎確立
- 政治的 肅清을 통한 "카리스마"적 권위의 일인 支配 体制 確立
- 6.25사변이라는 混亂을 一人独裁体制 確立에 악용

(2) 北韓住民의 意識구조의 改造 (1960-69)

- (가) 住民統制 組織化
- "住民登錄事業" 實施 (1962)
 - "住民再登錄事業" 으로 發展 (社会安定省)
 - 住民의 成分調査
- | | |
|-------|--------|
| 核心階級 | : 21 % |
| 基本階級 | : 28 % |
| 複雜한階級 | : 51 % |
- (나) 思想事業의 強化
- 住民 : 매일 2時間 思想학습
 - 幹部 : 年 2 - 6 個月間 各學校 派遣, 思想教育 이수

(가) 住民의 軍事動員

- 4大軍事路線 (1962.12 採択)
 勞働赤衛隊 (年 500 時間)
 붉은 青年근위대 (中 - 高等学校의 정규과목)

(나) 各種 외곽團體의 機能強化

- " 朝鮮농군맹 " 을 " 農民同盟 " 으로 組織強化
 (1964.6 4期9次전원회의 決定), 260 万名 加入
- " 민청 " 을 " 사노청 " 으로 改稱 (1965.5 민청대회
 決定), 270 만명 加入

(다) 女性의 社會主義化

- 勤勞者, 事務員中 女性의 比率

56 年	19.9 %
64 年	37.3 %
71 年	53.7 %

- 婚姻연장
 男 : 28 歲 (勞働力 극대화)
 女 : 26 歲 (經濟的 壓迫)
- 탁아소, 유치원제로 擴充 (1966)
 탁아소 (滿 4 歲까지) : 23,251 個所 87 万 3 千名
 유치원 (5 - 6 歲) : 15,218 個所 79 万名

(라) 各種 社會主義 競争運動의 展開

- 千里馬 運動
- 千里馬 勳章制定

評 価

- 金日成 体制에 대한 反抗勢力의 상존
- 社会意識 改造運動, 社会的 組織化, 社会主義 競争運動 등은 反抗勢力의 抬頭를 抑制하기 위한 手段

(3) 金日成 一人独裁 体制의 加速化

- (가) 北韓住民에 대한 감시의 加重
 - 5号担当制 → 10 호분조 (連帶責任)
 - 反革命分子에 대한 "全人民的 鬪争" 展開
(붉은 青年近衛隊에 反革命分子 索出命令)
- (나) 勞動力 動員의 극대화
 - 千里馬 運動 → 各種 "速度戰" 化
- (다) 北韓社会의 병영화
 - 4대 軍事路線의 補完作業
 - 戰爭발발의 恐怖분위기 造成
- (라) 金日成 偶像화의 最高절정
 - 歴史的 事實을 날조, 金日成 가계에 革命傳統性 부여
 - 神格化
生日의 명절화, 어록의 성서화, 生家の 성역화, 호칭의 誇張 表現 (형용사, 177 자)

評 価

- 金日成의 偶像化, 유일思想의 鼓吹, 社会主義 競争運動은 “社会主義 社会”로 돌입하면서 더욱 가열화
- 이는 金日成 一人独裁体制가 내포하고 있는 制모순을 合理化하고 이를 극복키 위한 強压的 手段
- 現在 北韓社会는 “社会主義가 發展할수록 階級鬭爭은 격화된다”는 스탈린의 명제를 방불케하고 있음.

나. 變質要因과 變質 可能性

(1) 變質要因

- (가) 무자비한 肅清을 속성으로 하는 스탈린式의 独裁体制
- (나) 金日成 独裁体制가 한계점에 육박
- (다) 金日成. 유일思想에 의한 意識의 改造에 대한 반작용

(2) 變質 可能性

- (가) 潛在的 反抗勢力의 顯在化→이를 억제키 위한 獨裁體制의 強化→反抗勢力의 擴大
- (나) 反抗勢力이 社會技能의 分화와 결부되어 合理主義的, 달이테올로기의 思考에로의 意識構造의 變動을 惹起
- (다) 이는 우리의 北韓에 對한 技能主義的 接近을 용이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作用할 것임.

5. 結論 및 展望

가. 內的要因의 重要性

1970年代 後半과 1980年代에도 東·西間의 平和共存, 緊張緩和가 持續될 것이라고 가정할 때 金후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外的 要因보다도 韓半島의 內的要因에 依해서 크게 左右될 것으로 판단됨. 지난 4月の 인도차이나半島의 共產化는 緊張緩和라는 國際情勢의 추세속에서는 한 國家의 將來問題가 外的要因보다도 內的要因에 依해서 決定的으로 支配된다는 事實을 보여주었음.

나. 二律背反的 狀況의 展開(教条主義와 修正主義)

이러한 前提下에서 現在 北傀의 諸般 內的與件을 分析해 볼때 北韓社會에는 두개의 커다란 二律背反的인 現象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됨. 그 하나는 金日成에 대한 偶像化와 一人 獨裁體制의 永続化로 代表되는 教条主義의 持續的 現象이며 또 하나는 테코노크라시의 現象의 抬頭와 世代交替의 움직임임. 이 두개의 現象(테코노크라시, 世代交替)은 金日成에게는 分明히 否定的인 現象임에는 틀림없지만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不

可避하게 이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 (1) 이 두 現象은 分離된 現象이 아니라 相互 密接히 關聯하여 進行되고 있다.
- (2) 南北韓 經濟力의 格差의 漸增趨勢에 대한 초초감과 最近의 經濟成長의 둔화현상을 打開하기 爲해서는 이를 容認할 수 밖에 없다.
- (3) 특히 이 가운데서 世帶交替는 金正一의 後繼者 擁立問題와 깊이 關聯되어 있다.

그런데 問題는 이러한 테크노크라시, 世帶交替現象은 過去 中共의 尤소기시대와 現在의 蘇聯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合理主義的, 脫이데올로기의인 性格을 띠고 있음으로 그 自体에 修正主義를 낳게 하는 要因을 內包하고 있음.

그럼으로 金日成으로서는 그의 獨裁體制를 지탱해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에 틀림없는 教條主義 以外에 不可避하게 修正主義의 胎動을 容認하지 않을 수 없는 二律背反的인 狀況에 處해있음.

다. 修正主義의 克服

그러니까 앞으로 金日成이가 이 不可避하게 抬頭되는 修正主義의 抬頭를 어떻게 克服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提起됨.

金日成으로 取할 수 있는 가장 쉬운 方法은 지금 北韓社會에서 展開하고 있는 바와 같은 速度戰, 金日成에 대한 偶像化,

金日成 唯一思想에 의한 意識의 改造등을 一層 加熟化시키는 것임. 그러나 이것이 한계점에 到達했다고 判断할때 金日成으로서는 非常手段에 호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임.

中共에서 유소기 一派의 修正主義를 근절하기 위해 展開했던 1960年の 文化革命, 1974년에 始作된 "批林批孔" 運動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金日成이 執權한 이래 現在까지 "黨集中指導" 南勞黨肅清등 反對派와 反革命分子에 대하여 大大的인 肅清을 되풀이해 온 北韓에 있어서는 中共의 毛沢東이 取한 그러한 革命的 方法의 意義는 이미 喪失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됨. 따라서 金日成이 取할 수 있는 最後의 手段은 武力에 의한 南侵으로서 北韓 自体内의 危機的 狀況을 克服하려는 것임.

金日成一人獨裁體制가 執權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인 肅清과 金日成思想의 強要가 그의 權力維持와 密接히 關聯되어 있었다는 事實에 注目해야 하며 따라서 北傀의 武力南侵을 惹起하는데는 韓半島의 內的要因 가운데서도 北韓 自体内의 与件 (要因)이 第1次的이며 南韓의 与件은 副次的인 것임. 1968年을 前後해서 中·蘇紛爭이 最高絶頂에 達했었을때 金日成이 中·蘇紛爭이 주는 試鍊 (이 試鍊은 北傀에 있어서는 執權이래 最大의 試鍊이었음) 을 克服하기 위해 "프예블로" 号와 이씨 121 事件을 惹起하고 蔚珍, 三陟등지에의 계릴라浸透에 의한 挑発을 敢行했던 事實을 想起해 볼 必要가 있음.

라. 結 論

本 課題를 研究하여 얻은 하나의 結論은 北韓社会内에서 위에 서 본 바와 같은 여러 否定的인 現象의 抬頭로 金日成이가 自体 政權維持가 困難할때 北傀의 武力南侵의 可能性이 가장 濃厚하다는 것임.

다시 말하면 70年代 後半과 80年代 韓半島의 統一問題에 있어서는 內的要因이 外的要因보다 決定的인 重要性을 띠고 있으며 더 나아가 韓半島의 与件이 印支半島의 与件과는 相異하다는 点 - 南北韓 經濟成長 競争에서 韓國의 優位性 持續, 韓國民의 反共意識의 透徹, 駐韓美軍의 存在, 美國에 의한 公約履行의 遵守다짐 등 - 을 고려하여 볼 때 80年代 韓半島 統一問題와 關聯된 3大要因(①外的要因, 內的要因으로서의 ②韓國의 內的与件 ③北韓의 內的与件)중에서 北韓의 內的与件이 가장 支配的인 要因으로 作用하게 될 것으로 判斷됨.